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경기침체로 인한 기술보험·배상책임보험 리스크 증가

- 경기침체 중 건설 및 제조업의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술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.
 - 기업보험의 리스크를 주로 분석하는 Mactavish社は 영국의 250여개 건설·제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기간 중 건설·제조업 분야의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함.
 - 분석대상인 250개 업체 중 65%가 보험계약 당시 “적절하게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증대된 운영리스크를 고지하지 못했다”고 언급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.
 - Mactavish社は 이와 같은 리스크 증대는 손해보험사에게 금융위기 이후의 후폭풍이 되어 향후 3년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함.
- 운영리스크의 증가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요 원인으로 ①생산능력의 취약성 증가, ②성급한 상품개발, ③감독 소홀, ④비전문 영역 업무 확대, ⑤저비용 아웃소싱 등이 지적됨.
 - 몇몇 원자재 공급업체 및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 증대, 재고부족, 비용절감으로 인한 초과 생산능력 미흡 등으로 인해 생산 차질의 가능성이 증대됨.
 - 무리한 신규상품 출시 및 비전문 영역 다변화로 인해 제조물배상책임, 디자인 실패위험 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, 리콜로 인한 손실도 예상됨.
 - 건설업의 경우 자격요건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, 무리하게 입찰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며, 지나친 비용절감으로 인해 고용인의 안전과 감독부문이 소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.
 -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등 저가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 구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.

(Financial Times 1/6)